

[사회]

2007 전망과 트렌드

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쿨(Cool)하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소통(疏通)이 대부분이라 불필요한 접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네트워크에 마음대로 접속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상대편에 대한 의무감이 아무래도 덜하고, 친밀감도 떨어진다.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 감정과인을 절제하고 의무와 권리로 서로 얹매이지 않는다. 때문에 외롭다.

◇ 훈디=훈훈한
정이 흐르는 디지
털 네트워크.

‘情 네트워크’ 타고 따뜻한 소통

하지만, 인간은 소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사이월드 등 인터넷 포털에 있는 동호회의 숫자는 1천만개를 넘는다. 그중 어떤 동호회는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자랑한다. 동호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고 싶어서다.

2007년에는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외롭게 떠도는 사람들을 사이에 따뜻한 관계 맺기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훈훈한 정이 흐르는 디지털 네트워크’(훈디) 열풍이 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훈디’ 조성에 필요한 디지털 환경은 2006년에 탄탄하게 마련됐다. 웹2.0은 기존 포털들이 독점해온 정보생산 권한을 네이버들에게도 나눴다. 네이버들은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작해 ‘1인 미디어 전성시대’를 열었다.

인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임동인씨는 다행히 비법을, 홍대얼짱 김은비씨는 클럽에서 통하는 화장법을, 디자이너 유혜진씨는 월드컵 응원 복 리폼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UCC를 블로그나

동영상 UCC로 정보공유

꽃미남 보다 ‘훈남’ 각광

디지털에 감성 입혀지며

광고·대선 등에 큰 영향

사이월드에 올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생활의 비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들 UCC는 농경 생활시절 이웃사촌 간의 ‘우리’ 같은 정보공유와 협력을 디지털 공간에서 재연하고 있다. 무려 1만 5천여명이 파티 기획자 정경영씨의 미니홈피에 일촌 맷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다. 최대 200명까지 이웃 맷기를 하고, 상대방의 블로그에 들어 댓글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

거들도 많다. 이들은 텔런트 원빈 같은 ‘꽃미남’보다는 축구선수 박지성 같은 ‘훈남’(훈훈하게 정이 가는 남자)을 좋아하는 부류들이다.

이 같은 훈디 바람은 상품광고는 물론,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도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공간에서 동영상UCC 등을 활용한 대선 캠프별 선거운동은 내 편은 아우르고, 상대편을 유혹하는 새로운 소통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상품광고에도 디지털에 따뜻한 감성을 입혀 소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내 6천여 세대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동영상 블로그 서비스, 고품질 인터넷TV 등이 가능한 FTTH(광가입망) 구축을 끝냈다.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장은 “한국인들은 재빨리 지식정보문명에 진입했지만, 오랜 농업문명의 유산인 정(情)네트워크에 익숙해 있다”며 “올해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풀한 속성에 대항, 따뜻한 관계맺기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서울대 교수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

“실력보다 사람됨이 먼저다”

조국 법대 교수 등 서울대 교수 8명은 구립 31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서울대 교수들이 청년에게 주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인생 선배와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진보적 법학자로 유명한 조 교수는 “안정적 지위 보장의 유혹에 눈이 멀지 말고 새로운 장을 여는 일에 뛰어들라”고 주문했다.

‘국가석학 10인’으로 선정된 이형목(전문학과) 교수는 “기성 세대가 인정된 생활을 위해 현실성 있는 공부를 요구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기초 학문에 도전해 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현숙(생명과학부) 교수는 창의적인 직업을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꼽았던 베트런드 러셀의 말을 인용해 “진정한 엘리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여러분이 쉬운 길보다 의미 있는 가치를 택할 것을 바란다”고

다”고 말했다.

김영정(철학과) 교수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해달라”고 부탁했다.

주경철(서양사학과) 교수는 “덕성스럽지 않고 재주만 많은 학생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부터 ‘재승덕(才勝德)’이라고 불리며 가장 수준 낮은 인간으로 경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처장 국양(불리학과) 교수는 하루하루를 충실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근(경제학부) 교수는 “꿈이 없는 인생은 운전대 없는 자동차다. 계속 가기는 가능해 어디로 갈지 몰라 때로는 재자리를 맴돌기도 한다”며 꿈을 갖고 한 걸음씩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올해도 만복 다가지세요’

원하고 있다.

새해 첫날 포근… 구름사이로 ‘해맞이’

정해년(丁亥年) 새해 첫날 광주·전남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광주·전남

을 한해는 데지처럼 복된 1년이 되길….”. 화순 만연초등학교 5학년 돼지띠 어린이 5명이 돼지를 품에 안고 새해 소망을 기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전남은 영하 3도~1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2일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오히려 2~3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구름사이 떠오른 ‘새희망’

서쪽지방에서부터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차차 흐려짐	0~10°C
포항	차차 흐려짐	1~10°C
여수	차차 흐려짐	3~10°C
원도	차차 흐려짐	1~10°C
구례	차차 흐려짐	-3~10°C
해남	차차 흐려짐	-3~11°C
장고	차차 흐려짐	-3~11°C
순천	차차 흐려짐	-3~10°C
광양	차차 흐려짐	0~10°C
전주	차차 흐려짐	0~11°C
전남	차차 흐려짐	-1~10°C
원정	차차 흐려짐	-4~10°C
정읍	차차 흐려짐	-2~9°C

1월 1일
(음 11월 13일)

◇ 전국날씨

날씨



한국 호랑이 1호 ‘백두’ 숨져

서울대공원 자연사 밝혀

국내에서 태어난 한국 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 제1호인 ‘백두’(수컷·사진)가 최근 숨을 거뒀다.

서울대공원은 “국내 동물원에서 번식한 첫 한국 호랑이인 백두가 지난해 23일 숨졌다”며 “부검 결과 노화에 의한 자연사였다”고 밝혔다.

백두는 1986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미국 동물원에서 들여와 서울대 공원에 기증한 5미리의 시베리아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호랑이이다.

남한에서 아생 호랑이는 1922년 경주 대역산에서 한 마리가 사살된 이후 멸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의원 서울대공원 동물복지과장은 “백두는 올해로 17살로, 사람으로



치면 70살
이라고 말
했다.

백두는
모두 19마
리를 번식
시켰으며
골격이 크
면서도 아

름다워서 동물원을 찾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고 동물원은 전했다.

모의원 과장은 “백두는 동물원에 서 상징성 있는 특별한 존재였다”며 “털은 위낙 고령이어서 별 가치가 없고 뼈를 살려 ‘골(骨) 표본’을 제작,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 활 안내

신고

교통안내	● 학교폭력
철도안내	국민안전
대한항공	전남경찰청
아시아나항공	경주지검
한국도로공사	112
	226-0112
	233-2828
	(02)118
상담	● 시아비테리
당번호조사(1일)	● 정폭력
김길수	● 국민안전
법무사회 법률상담(2일)	● 소비자 상담
김재길	● 병무민원상담
	1588-0060
	1588-9090
	232-6133
	524-5400
	232-0643-4
	369-9881
	1391

정해년 새해에 봄이 왔습니다

호랑이 편

2007년 1월 1일 월요일

사쁜 꽃 편

2007년 1월 1일 월요일

힐링 편

2007년 1월 1일 월요일

국제보청기 편

2007년 1월 1일 월요일